



모두에게 고마운 찰나 Thank U! :
고맙습니다

0Sec



KTR & U

미래, 혁신, 신뢰, 행복 '2023년 KTR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가을이 깊어져 가는 10월 20일.
KTR 임직원들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모두 한자리에 모여
'2023년 KTR 한마음 체육대회'를 마음껏 즐겼다.
응원과 도전의 열기로 하나가 된 뜨거웠던 현장을 돌아본다.

KTR 가족 모두가 단합과 화합을 누린 한마음 체육대회!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어느 날, KTR 과천 본원을 비롯해 전국 29곳에 흩어져 있는 청사와 지원센터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모였다.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오늘 체육대회에는 1,2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각 민원부서와 출장 인원을 제외한 940여 명이 참여하였다.

“KTR은 매년 임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오다 근 10여 년간 모든 임직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김현철 원장님이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제안하셨고 그 계기로 오늘 체육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오영선 조직위원장이 체육대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에 '2023 KTR 한마음 체육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휘날린다. 진행자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신나는 음악소리가 운동장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팀별로 색색의 조끼를 입은 직원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colouring

나만의 컬러링

감사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색칠해 보세요!



크리스마스트리를 여러분의 감성으로 감사와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색칠해 사진을 찍어 성명, 연락처와 함께 sunnypark@ktr.or.kr로 보내주세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께는 교촌치킨 허니콤버와 레드콤보웨지감자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 1월 12일까지

미래, 혁신, 신뢰, 행복 '2023년 KTR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가을이 깊어져 가는 10월 20일.
KTR 임직원들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모두 한자리에 모여
'2023년 KTR 한마음 체육대회'를 마음껏 즐겼다.
응원과 도전의 열기로 하나가 된 뜨거웠던 현장을 돌아본다.

KTR 가족 모두가 단합과 화합을 누린 한마음 체육대회!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어느 날, KTR 과천 본원을 비롯해 전국 29곳에 흩어져 있는 청사와
지원센터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모였다.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
기 위해서다. 오늘 체육대회에는 1,2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각 민원부서와 출장 인원을 제
외한 940여 명이 참여하였다.

"KTR은 매년 임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오다 근 10여 년간 모든 임직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김현철 원장님이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제안하셨고 그 계기로 오늘 체육대
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오영선 조직위원장이 체육대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3만 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운동장에 '2023 KTR 한마음 체육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휘날린다. 진행자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신나는 음악소리가 운동장
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팀별로 색색의 조끼를 입은 직원들의 열
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세계 No. 1 시험인증기관 도약을 위한 도전과 열정의 순간! "지금부터 2023년 KTR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운동장에 입장하자 오영선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됐다. 전
임직원들의 박수와 함성소리가 운동장을 넘어 청명한 가을하늘에 울려 퍼졌다. 체육대회를
위해 정해주 이사장을 비롯해 김현철 원장, 전성규 부원장,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현철 원장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체육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KTR 직원 여러분!"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각각 한 종목씩은 참여하도록 독
려하여 모두 함께 즐기는 체육대회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화합
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며 전 직원과 함께 'KTR No. 1'을
외치며 개회사를 끝마쳤다.

이어 정해주 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임직원을 마주하게 되
어서 기쁘다"면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 김현철 원장 취임 후 크게 발전하고 있는 KTR의
단합된 모습을 새롭게 보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그동안 업무에 정진했던 마음을 잠시 뒤로하고 마음껏 뛰고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됐다. 4가지 경영미션 미래,
혁신, 신뢰, 행복을 팀명으로 직원들이 4개 팀으로 나누어졌다. 팀별로 운동장에 선 직원들
은 게임 시작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재밌는 레크리에이션과 간단한 율동으로 시험실과 사무실에서 고된 업무에 지쳤던 직원들
의 굳었던 근육을 풀어준다. 간단한 준비 운동만으로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직원들의 얼굴
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개최 축하 인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해주 이사장

"KTR은 국내 시험 인증기관 중 가장 으뜸입니다. 국가 수출과 산
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큰 자부심과 긍지
를 갖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단합된 마
음으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10년 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오늘 체육대회를 축하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원장

"KTR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더 가치 있
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도 직원들이 화합하
고 단결하여 더욱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 사랑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성규 부원장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너무 즐거웠어
요. KTR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직원들 모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에 너
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2024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KTR 되길 다짐!

스트레칭을 끝으로 다양한 게임이 이어졌다. 서로 단합해 다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게임을 비롯해 축구, 피구, 계주, 줄다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겨루었다. 아울러 신발 양궁, 행운판 돌리기, 견배사 등 이벤트 행사도 진행됐다. 팀 별로 응원전도 대단했다. 시합이 계속될수록 자기 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경기에 참가한 직원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스포츠를 즐기며 땀을

흘렸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니 즐거움이 배가 된다. 먹거리도 가득했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은 준비된 다양한 먹거리로 배를 채우며 경기관람을 즐겼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료들과 담소도 나누고 함께 응원하며 관계가 더욱 단단해진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온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세계 No. 1으로 뻗어나갈 KTR을 기대해 본다.

팀 대표 인터뷰



미래팀
고분자재료팀 김은수 수석연구원

"전 직원을 한자리에서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KTR의 단합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모두 풍부한 행복한 하루였어요."



신뢰팀
대구경북지원센터 고영봉 센터장

"오늘 새벽 6시에 출발해 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0년 만에 온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런 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팀
글로벌사업팀 김경린 선임

"오늘 피구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팀전이기에 팀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었어요. 입사한 지 5년 됐는데 오랜만에 멀리 흩어져 있는 동기들도 만나고 땀 흘리며 함께 운동도 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행복팀
이차전지시스템사업단 김미성 단장

"오늘 저는 OX퀴즈에 참여했어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단원들과 연습을 많이 했는데, 결과보다 동료들과 함께해 즐거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을 한자리에 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GOOD ISSUE

이승호 연구원, 제49회 베를린마라톤대회 완주!

세계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베를린마라톤'에 KTR 연구원이 됐다! 그 주인공은 수출인증사업단 수출인증지원센터 이승호 연구원이다. 그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49회 베를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날을 위해 꾸준히 체력을 길러온 이승호 연구원은 대망의 날, 2시간 59분 43초로 Sub3, 세 시간 안에 완주를 성공했다. 전 세계 약 4만 5천여 명의 러너들 속에서 당당한 완주에 성공한 이승호 연구원! 축하드립니다!

From 이승호 연구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수출인증지원센터 팀원들과 유문선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CONTENTS

2023 WINTER
VOL. 28

KTR + PEOPLE



KTR Issue

미래, 혁신, 신뢰, 행복
'2023년 KTR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02

2023 KTR Highlight

KTR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인 하이라이트
08

2023년 겨울호(통권 28호)



KTR&U 웹진
www.ktrnuweb.or.kr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Tel. 02-2164-0087
Fax. 02-2634-0016
www.ktr.or.kr

기획·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인쇄
(주)영은문화

<KTR&U>에 게재된 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하는 휴게소
우리 모두가 KTR 감사왕!
10

팀 빌딩 프로젝트
"감사하고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14

우리가족 Thank U
서울, 강을, 서운!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2024년에도 행복하게 해줄게!
18

찾아가는 클래스
메리 크리스마스!
KTR 숨은 일꾼,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
22

커버 스토리
"KTR 모든 동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2024년에도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갑시다!"
26

KTR + FOCUS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다!
28

테마 인문학
반려견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32

미래적 참견시점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한 건강관리!
34

호기심 백과사전
초를 닦는 노력을 통해 삶을 풍성하게 한 성과들
38

KTR + CULTURE



마음 처방전
삶에 감사해
42

이상한 과학실
왜 눈은 하얀색일까?
46

일상 속의 여유
감사와 기쁨 한가득 겨울 여정!
-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
48

우체통
50

나만의 컬러링
51

2023 KTR Highlight

KTR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증명하고 글로벌 위상을 높인 하이라이트!



KTR 사상 최대 직원 한자리에 함께 뛰고 웃는 소통의 장 성황리에 마쳐
KTR 이름으로 하나 된 하루, 2023 한마음 체육대회



국내 최초 글로벌 종합인증기관 폴란드에 세워, KTR 글로벌 위상 대내외 과시
글로벌 종합인증기관 GCB 직접 설립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직업능력 개발, 5년간 장기 수입구조 확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지정



시험기간 단축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동물실(클린룸) 증축
화순 동물사육동 신축



국제표준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발급,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국내 1호 탄소발자국 KOLAS 공인인증기관 지정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서비스 기관, KTR, Your Solution!
KTR 새 비전, 목표, 슬로건 제정



높은 인적경쟁력이 KTR의 성장기반, 다양한 교육으로 인적수준 향상
역량강화교육 HRD FLEX 도입, 시행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기반 국내 최초 AI 국제표준 적용 시험평가 시작
판교 소프트웨어 센터 설치 및 AI 인증 등 사업확대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400억 원 투입해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구미 Baas 신증센터 구축사업 선정



전 세계 누비며 수출 기업 지원 네트워크 확대 국내 최대 45개국 216개 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17개국 29개관과 MOU 체결 등 글로벌 사업 활성화



KTR 임직원에게 의한, 임직원을 위한 제도 개편 '직원 행복을 위해'
자격수당 도입 보험 확대 등 직원사기 진작 제도 개선



방재 내화분야 전문 성능 검증 기반 확보, 재난안전산업 인프라 기대
홍성 방재센터 구축 등 방재사업 확대



업무환경 개선 및 청사 정비 위라벨 향상과 연구원 이미지 제고
북카페, 의료기기 상담실 등 스마트 근무환경 조성

KTR+PEOPLE

KTR 임직원과 가족들이 채워가는 섹션입니다.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합니다.



10

이동하는 휴게소
우리 모두가 KTR
감사함!

14

팀 빌딩 프로젝트
"감사하고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18

우리가족 Thank U
서울, 강릉, 서운!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2024년에도
행복하게 해줄게!

22

찾아가는 클래스
메리 크리스마스!
KTR 숨은 일꾼,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

26

커버스토리
"KTR 모든 동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2024년에도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갑시다!"



KIM's Kitchen이 KTR에 준 즐거운 영향력

- 하나, 원장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 둘, 동료들과 감사 인사와 새해 인사를 나누어 동료애를 느꼈어요!
- 셋, 어묵과 떡볶이로 출출한 배를 따뜻하게 채워 일의 능률이 높아졌어요!

KIM's Kitchen! 정말 멋진 감사 이벤트!

초겨울, 찬 바람이 부는 KTR 헬스케어연구소에 온기가 깃든다. 2023년 뜨거운 열정과 신뢰받는 전문성으로 KTR 성장을 이끌었던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김현철 원장님이 어묵과 떡볶이가 듬뿍 담긴 KIM's Kitchen 푸드트럭을 이끌고 왔기 때문이다. 반갑게 맞아주는 연구원들을 보자 원장님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연구원들과 감사 이벤트를 할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연구원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어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낀 202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즐겁고 맛있게 드세요!” 앞치마를 두르고 하나하나 연구원들과 인사하며, 따뜻한 어묵과 매콤한 떡볶이를 건네는 원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한 손에는 떡볶이,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연구원들은 “고맙습니다! 원장님!” 큰 목소리로 화답했다. 푸드트럭 앞에서 간식을 맛있게 먹으며 “너 참 올해 수고했어!”, “네가 있어 정말 감사했어!”라며 활기찬 감사와 격려의 인사도 나누었다. 환경독성센터 박민수 선임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받게 되어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원장님께서 직접 간식을 나눠주시는 이벤트는 정말 처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원장님께서 오셔서 손수 간식들을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니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이 화합해서 성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한 2023년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연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즐겁게 간식을 먹는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며 김현철 원장님은 큰 보람과 감사를 느끼셨다고.

우리 모두가 KTR 감사왕!



O Sec: 모두에게 고마운 찰나 Thank U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KTR 헬스케어연구소 연구원들이 계를 뒀다. 2023년 한 해 동안 KTR을 빛내준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김현철 원장님이 푸짐한 간식거리를 들고 연구소를 찾은 것이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와서, 더 큰 감사를 얻었던 'O Sec: 모두에게 고마운 찰나 Thank U'의 순간을 포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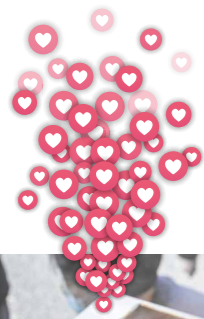
TIP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점

1. 행복감과 만족감이 증가한다.
2.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감소한다.
3. 건강이 개선된다.
4. 관계가 개선되어 신뢰가 높아진다.
5.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KTR 연구원들, 모두 감사해!

KTR에게 감사하는 서로의 노고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시간이 인정받음으로써 KTR의 자부심과 사기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도약하고 있는 화순군에서 KTR의 더 큰 도약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서로 협력하며 열심히 전진한 것이다. 의료안전성센터 조영현 연구원은 동료들에게 좋은 기운을 건네며 2024년, KTR의 새 꿈을 응원했다. “KTR 연구원 여러분들 2023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내년에도 힘차게, 열심히 할 수 있는 KTR 직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험인증 업무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했던 찰나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실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동료가 도움을 주었을 때, 과제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동료가 함께 축하해 주었을 때의 추억들이 뜨겁게 떠올랐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목표와 바람을 이루기 위해 KTR은 2024년에도 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연구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매우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처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의료안전성센터 박세철 책임연구원에게는 의미가 깊다.

“오늘 정말 좋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접 원장님께서 내려오셔서 소통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2023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잘해주셔서 성장하는 더 좋은 KTR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업무의 성과는 한 사람이 혼자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연구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취할 수 있다. ‘O Sec: 모두에게 고마운 찰나 Thank U’를 통해서 연구원들은 서로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협업 정신을 강화할 수 있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이벤트 현장을 찾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포장해 들고 가는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KTR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다. 우리는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KTR은 더욱 따뜻하고 발전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파이팅이 넘쳤다.

KTR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구원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2024년에도 감사할 일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었다. 따뜻한 어묵 국물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줄 훈훈한 일들이 많이 기대했다. 비임상평가센터 이세린 연구원은 동료들과 함께한 헬스케어연구소가 2024년에도 행복하고 따뜻한 일터가 되기를 꿈꾸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 하나하나 생각해 주시는 원장님의 감사한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연구소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2024년에도 항상 행복하세요!”

GLP운영총괄실 문배은 연구원, 김경아 선임, 최효정 책임연구원도 그간 동료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많이 들어준 동료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구원들은 함께 사진도 찍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해의 희망을 다짐했다. 김현철 원장님은 서로의 꿈과 감사를 나누며 성장하는 KTR 연구원들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KTR은 최고의 기관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시험인증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원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해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감사를 서로에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KIM's Kitchen 푸드트럭은 감사가 한 아름 담긴 KTR, Thank U였다.

KTR 연구원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의료바이오연구소 의료지원센터

2023년 한 해 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팀원에게 기쁨과 활력, 여유를 선물한다. 11월,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만드는 감사 이벤트가 열렸다. 의료바이오연구소 의료지원센터의 감사제를 엿보자.



김남주 연구원, 김수희 연구원, 이경재 책임연구원, 홍성준 선임연구원, 강유림 선임연구원, 이종윤 수석연구원, 박찬규 책임연구원
박임관 책임연구원, 김미경 책임연구원, 이시은 연구원, 장동혁 센터장, 장운영 책임연구원, 김정아 연구원

2023년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어

11월, 모던한 디자인과 첨단 시설로 리모델링한 의료바이오연구소 의료지원센터가 따뜻함과 애정이 깃든 알록달록한 장식들로 정겹다. 팀원들은 예쁜 색깔과 모양의 종이, 리본, 털실 등을 호기심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린다. “이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지?”, “네, 정말 예쁘네요.” 동료들과 한 해 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며 서로 협력하여 웃음꽃을 피우면서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종윤 수석연구원은 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크리스마스를 더욱 정감있게 할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뒹다. “가랜드를 함께 만들 수 있어 재미있어요. 사실, 팀원들과 이벤트를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한 해 동안 친근하게 대해 준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박찬규 책임연구원은 팀원들과 진심을 나눌 기회가 있어 기쁘다.

“팀원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일을 재촉할 때마다 합심하여 잘 따라와 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색깔의 장식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갖추어 갈 때마다 팀원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강유림 선임연구원과 김수희 연구원은 이런 팀의 화목한 관계를 ‘툰니바퀴’와 ‘나무’라고 했다. 항상 서로를 보완하여 업무가 툰니바퀴처럼 원활히 돌아갈 수 있어 KTR은 하나가 되었고, 나무처럼 높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깃들었던 꿈과 사랑이 오래도록 눈부시게 흰 눈처럼 세상에 퍼지길 소망하며 차근차근 장식을 꾸며나갔다.

우리들의 축제, KTR 감사제!

2023년은 팀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은 한 해였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협력하여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 잘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의료기기 관련해 큰 공헌을 하여 팀 내 두 명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을 받았다. 박임관 책임연구원은 이를 팀의 가장 큰 자랑스러운 일로 꼽았다. “올 한해, 우리 팀원들의 노력과 기술력으로 의료기기 분야에 큰 발전을 끌어냈어요. 내년에도 더 큰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경재 책임연구원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했던 우리들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순간들이 벌써 그리워졌다. “올해는 힘든 시기였지만, 다들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셔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가랜드 만들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우리 팀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을 얻었다. 장운영 책임연구원과 김미경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아주 많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인해 업무도 효율적으로 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기쁨을 배가시키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더욱 높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점을 3가지씩 떠올려 보자. 하루가 끝나면 감사할 점을 3가지씩 적어보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직접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오늘이 바로 KTR의 감사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에도 즐겁게 일하자!

새 팀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홍성준 선임연구원, 어려운 일마다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는 김남주 연구원, 팀에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김정아 연구원... 함께 새 비전을 계획하며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자며 희망찬 2024년 꿈꿨다. 감사와 비전을 나누는 팀원들을 바라보는 장동혁 센터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팀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팀원 누구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이를 수 없었던 큰 성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의료지원센터가 잘 돌아가야지만 연구소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추진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를 믿고 파이팅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스마트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듯이, 내년에도 팀원들

을 위해 인력 보강 등 업무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도 멋지게 리모델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미있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나누며 가랜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 김수희 연구원과 이시은 연구원은 내년에도 건강하고 즐겁게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크리스마스 가랜드는 행복과 기쁨,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선물을 저마다의 가슴 속에 한 아름 품었다. 이 모든 감사의 선물이 모여 온기가 되어 우리의 겨울이 따뜻해졌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 하길 함께 소원했다.

의료바이오연구소 의료지원센터 팀원에게 전하는 2023 감사 메시지!

- 장동혁 센터장**
“재미없는 센터장의 농담에 웃어 준 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는 의료바이오 분야 마케터, 국내 최고의 센터입니다. 국내 No.1을 넘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 이종윤 수석연구원**
“많은 상담과 실적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항상 웃으며 서로를 격려해 주며 지나고 갑니다. 다들 지금처럼만 해라! 그러면 많이 나아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2024년 파이팅!”
- 박찬규 책임연구원**
“고객과 가장 먼저 접점을 이루고 KTR 발전에 이바지하는 팀원 여러분! 하루하루 민원인을 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함께 해주셔서 항상 힘이 납니다! 센터장님을 필두로 더욱 즐겁고! 활기찬! 살아 숨 쉬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임관 책임연구원**
“올해 새로 팀에 합류했는데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셔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금처럼 항상 행복이 가득한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장윤영 책임연구원**
“늘 발전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팀! 내년에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팀과 함께 발전하는 팀원으로 2024년에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이경재 책임연구원**
“모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업무 와중에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팀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 김미경 책임연구원**
“센스쟁이 센터장님, 재미있는 팀원들 덕분에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

- 속에서 함께 근무해서 좋아요! 지금처럼 개인의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협업을 잘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 홍성준 선임연구원**
“새로운 부서에 배정받아 모르는 게 많은데,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적응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과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지금처럼 일 잘하는 화목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유림 선임연구원**
“2023년 한 해 동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에도 의료지원센터 파이팅!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꼭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희 연구원**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많은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웃는 새해를 맞으세요!”
- 김정아 연구원**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료지원센터 더욱욱 번창하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김남주 연구원**
“즐거울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다정한 센터장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의지하면서 도움이 되는 팀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시은 연구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팀! 이미 즐거운 곳이지만 점점 더 밝아지는 곳이 될 수 있게 힘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스마트워크 업무환경개선 프로젝트
스마트워크추진TF 김선 TF장



Q. 리모델링은 어떤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나요?

김현철 원장님께서서는 직원의 업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깊으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콘셉트는 공간을 분리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3층 KTR 북카페에서는 화상회의(사전 예약)를 할 수 있고, 리플레쉬룸에서는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편히 일할 수 있는 캐주얼룸도 안쪽에 배치했구요.

Q.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했고,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KTR 비전에 맞게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화상회의 때 큰 화면으로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어 업무 관련 인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도 절약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죠. 4층에는 글로벌 비전과 탄소중립 등의 사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아트월을 설치했습니다. 외부 손님에게 손쉽게 스크린 터치를 통해 KTR을 소개할 수 있죠. 직원들도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체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 개인 사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무가구를 단순화, 통일성 있게 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줄여 밀집도를 해소하여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회의실 경우 4인, 6인실을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는 8인실 형용 규모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객 점점 부서도 환경을 개선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Q. KTR 직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스마트워크추진TF는 올해 처음 생긴 부서로서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워크 업무환경개선 프로젝트

- 1 KTR 북카페(과천청사 1동 3층)**
직원들이 책과 커피, 차를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과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소용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리모델링
- 2 글로벌 네트워크 아트월(과천청사 1동 4층)**
전 세계 45개국 216개 기관과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내외 인증, 탄소중립, 시험검사 등 KTR 업무 전반을 소개할 수 있는 아트월을 디지털화함
- 3 의료바이오연구소 의료지원센터 (과천청사 3동 1층)**
고객 중심의 스마트 오피스 리모델링으로 의료기기 고객과의 전문화된 상담 공간 구축
- 4 백두홀(과천청사 1동 1층)**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친환경 바이오 화학 산업전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장으로 탈바꿈

우리가족 THANK U

(오른쪽부터) 수질환경센터 이준배 책임연구원, 둘째 이강을, 막내 이서은, 아내 김효정, 첫째 이서울



서울, 강을, 서온!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2024년에도 행복하게 해줄게!



한옥 체험은 아름다운 한옥의 구조와 특징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통해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준다. 수질환경센터 이준배 책임연구원 가족이 전통 한옥을 찾은 이유이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운치 있는 한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감사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으로 들어가 보자.

건강한 우리가족 너무 감사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즈넉한 한옥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북한산 전망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오랜만에 가족과 여유를 누리는 수질환경센터 이준배 책임연구원의 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다. 사춘기를 앞둔 큰딸 이서울, 부끄럼 많은 둘째 이강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교쟁이 막내딸 이서은이 즐겁게 한옥의 맛을 느끼고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보람을 느꼈다. 특히, 아내가 한옥을 둘러보며 흡족한 듯 온화한 미소를 짓자, 긴장이 한결 풀린 눈치다. 가족과의 한옥체험은 이준배 책임연구원이 아내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워킹맘이었는데, 올해 퇴직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육아에만 전념해야 하는 아내를 곁에서 바라보니 조금은 힘겨워 보였어요. 한 11개월이 지났는데, 육아가 쉽지 않으니깐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에게 힐링을 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한옥을 찾았습니다.”

오늘 가족이 묵는 곳은 외부경관, 골목길, 마당, 내·외부공간의 연계가 내실 있게 짜인 현대식 기와집 한옥이다. 기둥, 보, 도리 등으로 이루어진 목조 구조로서 나무의 온기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한옥을 둘러보고 가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자, 이준배 책임연구원은 한옥을 찾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다.

“2023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감사하죠. 서울이는 아빠랑 엄마랑 친구처럼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강을이는 친구들이랑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막내 서은이는 발레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면 감사하겠고요.”

가족 얼굴에 겨울 햇살이 내려앉으며 반짝이자, 마음에도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감사하며 살기로 약속해!

이준배 책임연구원과 아내는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세 자녀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감사이다.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가게 해주는 자녀들이 있어 2023년이 행복했고, 2024년이 더욱 기대된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서울, 강울, 서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다짐하며, 한마음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사랑하는 딸, 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인사를 듣자, 막내 서운이는 엄마, 아빠에게 산타할아버지가 되어달라며 재롱을 부린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쁜 인형을 한 아름 받고 싶은 마음이다. 하트를 뿜 날리며 “토끼 인형 선물해 줘요!”라고 노래를 부르자 이준배 책임연구원이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라고 웃으며 화답하니 서운이가 “감사합니다!”라고 공손히 인사를 한다. 서울이와 강울이도 받고 싶은 선물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꾸었다. 아이들과 정겹게 어울리며 행복해하는 이준배 책임연구원을 바라보며 아내가 입을 열었다.

“식구를 보살피는 것이 힘들 법도 한데, 남편은 싫은 내색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 남편을 보면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열정을 쏟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고요. 여보, 감사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이준배 책임연구원은 늘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 주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진심에 가슴이 벅차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을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반자로서 함께 해나가자. 고맙고 감사해.”

감사는 사랑의 언어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라고 마음을 전할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자녀들이 화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오늘 이준배 책임연구원 가족은 2024년에 더욱 감사하며 더욱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로 약속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건강하게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그리고 다 같이 외쳤다. 우리가족 Thank U!



행복을 알아가는 우리가족 사랑해!

서울, 강울, 서운이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눈에 호기심이 가득, 밝게 빛난다. 가족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 이준배 책임연구원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체험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긴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한옥 체험처럼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함께 어울리는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싸우지 않고 사는 법을 알아가면 좋겠고요. 서울, 강울, 서운! 오늘 아빠랑 엄마랑 1박 2일 좋은 추억을 만들자!”

개구쟁이처럼 밝게 뛰어노는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포근해졌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옥 체험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겠죠. 오늘 함께 찍은 행복한 모습이 담긴 가족사진을 예쁘게 집에 걸어놓으려고요. 행복했던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요.”

다시금 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막내 서운이가 패션모델처럼 포즈를 취하며 애교를 부리고 여기저기 폭소가 터진다. 서울 언니와 강울 오빠도 한껏 멋을 부린다. 토끼처럼 예쁘고 귀여운 표정을 짓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떤 감사를 느끼고 있을까? 의젓한 첫째 서울이가 조심스럽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아빠는 만드는 것을 잘하세요. 우리를 위해 요리도 잘 해주시죠. 엄마의 자랑은 수영이에요. 정말 수영을 잘하세요. 엄마, 아빠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느껴지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감사의 순간이었다.



TIP 자녀에게 감사 인사 가르쳐주는 법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법이다.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자녀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와 행동을 알려 주자. 자녀가 “고마워”, “감사합니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예를 들어, 식사 후 식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거나 선물을 받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칭찬하자. 자녀가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KTR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KTR의 CI가 파란색이죠. 좋은 기운이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KTR 동료 여러분! 가족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지게 승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KTR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 책임연구원 가족

메리 크리스마스! KTR 숨은 일꾼,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



맹기학 반장, 이인구 담당, 장정남 반장, 남윤찬 담당, 노해섭 반장, 황정규 팀장
정현숙 담당, 황명자 담당, 김원규 소장

우리는 매일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내가 가진 것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다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KTR의 조경, 전기, 설비, 기계, 미화, 안전을 책임지는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크리스마스 트리 클래스를 준비했다.



KTR 직원들의 '안녕하세요' 한 마디가 큰 힘이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이며,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좋고 옳은 방향으로 이끈다. 이 축복을 통해 우리의 관계와 환경은 개선되고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된다. 가치와 존재감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존감과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의 효과를 잘 아는 노해섭 미화 반장이 파이팅 넘치게 한마디 했다.

“동료분들 2023년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TR의 환경과 미화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든 분들이죠. 팀 화합이 정말 좋아서,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클래스의 주인공은 KTR의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감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이다. KTR 모든 직원이 안전보안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자, 황정규 팀장이 화답했다.

“안전보안팀은 청사 내 안전과 환경을 위해 시설 보안, 미화, 조경 등 24시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KTR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실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안전사고 없는 KTR, 건강하고 행복한 KTR! 나아가 모든 직원이 만

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항상 업무 시작 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시면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KTR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KTR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안전보안팀을 위해 감사가 듬뿍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수업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사랑과 축복, 감사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황명자, 정현숙 미화 담당 두 직원은 수업을 통해 힐링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그간 전하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힘든 일할 때, 동료들이 함께 서로 도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오늘 함께 트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며,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보안팀은 동료들의 감사 메시지를 듣고 더욱 힘을 내기로 했다. 팀원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랑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동료들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감사가 가진 힘이다.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이 소중하고 고마운 이유!

- 하나 KTR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업무 능력을 높여준다!
- 둘 아름다운 조경과 청결한 환경으로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TR 이미지를 심어준다!
- 셋 KTR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KTR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2023년! 너무 감사해

크리스마스트리의 기원은 고대 게르만족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르만족은 동지를 맞이하여 전나무에 촛불을 밝히고 장식물을 달아 축하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경 독일에서 이 풍습이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크리스마스트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꼭대기의 별은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로,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과 감사를 담아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해 갔다. KTR의 조경을 책임지는 정정남 조경반장의 손끝에서 탄생한 트리는 멋의 깊이가 남달랐다.

“KTR은 역사가 깊어서, 깊은 멋이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관리에 늘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죠. 저는 나무와 친한데, 머릿속 생각처럼 트리 작품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KTR 조경처럼 멋진 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맞아 모두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품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사셨으며 좋겠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KTR의 아름다움을 가꿨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트리를 만들면서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자 트리 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했다. KTR의 설비와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남윤찬, 이인구 직원은 한 해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기억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안전 점검과 문제 발생 시, 빠른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침착하게 트리를 만드는 맹기학 경비 반장은 KTR 임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순찰을 하면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건물의 규모가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순찰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동료들이 열심히 근무를 잘해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리 향도 너무 좋아서 오늘 수업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KTR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데 한몫하자고 다짐하였다.



KTR이 아름다운 이유

친환경적 건축과 지리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 구성



자연과 문화를 담은 안전한 공간

2024년 소원 성취하세요!

완성된 트리가 불빛을 내자, 팀원 모두의 얼굴도 환해졌다. 함께 만든 크리스마스트리를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팀원들은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늘 긴장하며 일해왔던 김완규 소장은 팀원들이 밝게 웃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된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더욱 젊어지는 팀이 되었고요. 하나가 되어 에너지가 넘쳤던 안전보안팀! 축복받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리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희망과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길을 밝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제가 안전보안팀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미흡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보안팀은 2024년에도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 KTR 임직원들! 2023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에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규 팀장의 새해 인사를 끝으로 팀원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희망찬 각오를 나누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하자, 크리스마스트리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힌다.

KTR!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 새해 메세지



노혜선 반장(미화)

“팀장님!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라는 좋은 감사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팀원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규 팀장

“항상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원들! 2024년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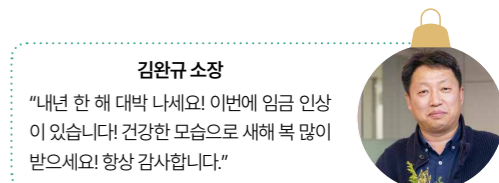
정정남 반장(조경)

“동료들과 함께해서 2023년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뜻깊습니다. 부족함 없이 몰심양면으로 잘 이끌어 주신 팀장님, 소장님 감사합니다! 동료들도 안전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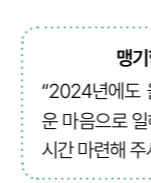
정현숙 님(미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료들과 감사 이벤트를 나눌 수 있는 KTR에서 일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올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완규 소장

“내년 한 해 대박 나세요! 이번에 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맹기학 반장(경비)

“2024년에도 올해처럼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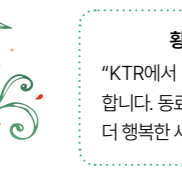
남윤찬 님(설비)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인구 님(전기)

“팀원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명자 님(미화)

“KTR에서 일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동료 여러분!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KTR 모든 동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2024년에도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갑시다!”

KTR을 대표해 13명의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KTR 연구원들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간 나누지 못했던 담소도 나누며 오순도순 표지 촬영에 임했다. 한 해 동안 함께 노력한 동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KTR 연구원들! 각 본부, 연구소, 단을 대표한 연구원들이 동료들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를 소개한다.



최경진 책임연구원, 이준성 책임연구원, 김동영 수석연구원, 박현주 책임연구원, 최희수 선임연구원, 강영민 책임연구원, 조준혁 선임연구원, 전진호 선임연구원, 이정민 선임연구원, 장성용 책임연구원, 전승주 선임연구원, 박호준 책임연구원, 서우림 책임연구원

행복한 KTR 만들어 가요!
경영기획본부 미래전략실 여러분! 매일 아침 업무 전, 환한 얼굴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KTR 만들어 가요!
경영기획본부 미래전략실 최희수 선임연구원

KTR 동료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업지원본부 고객지원센터! 최고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 존경합니다! 더불어 고객지원센터 식구들과 사업지원본부 동료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업지원본부 고객지원센터 박현주 책임연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본부 글로벌협력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서 따뜻한 겨울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파이팅!
글로벌본부 글로벌협력실 이준성 책임연구원

한 해 마무리가 풍요롭길 바랍니다!
2023년 시작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끝나갑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한 노력이 큰 결실로 맺어져 한 해의 마무리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인증본부 인증운영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도 모두 파이팅!
인증본부 인증운영실 김동영 수석연구원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연구소 도장재료센터 선배, 동료, 후배님들 덕에 올 2023년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부품연구소 도장재료센터 조준혁 선임연구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KTR은 성장했습니다!
존 소장님 외 환경화학연구소 모든 분의 노력으로 올 한 해 우리 연구소가 많은 성장과 함께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끈끈한 유대감과 친밀함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좋았던 기억, 고생했던 기억 등 모두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며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이 더욱더 많았으면 합니다.
환경화학연구소 대기환경센터 서우림 책임연구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올 한 해도 겨울과 함께 끝이 보이네요. 바쁜 일상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건설안전연구소 강경준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안전연구소 도로기술센터 전진호 선임연구원

혁신 변화를 이룹시다!
소프트웨어팀이 새로운 장소인 판교로 이전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연구소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돕고 지지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더 많은 협력과 혁신 변화를 이루길 기대하겠습니다.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 소프트웨어팀 박호준 책임연구원

미소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도에서 마주치거나 전화를 응대해 주실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밝은 미소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2023년 멋진 의료바이오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파이팅하는 의료바이오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의료바이오연구소 바이오센터 이정민 선임연구원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승영 소장님, 박영규 센터장님을 비롯한 비임상평가 센터와 헬스케어연구소 동료분들! 바쁜 시험 업무처리로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좋지 않은 기억들은 저물어 가는 해에 같이 묻어 보내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들이 우리를 찾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헬스케어연구소 비임상평가센터 장성용 책임연구원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남융복합연구소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열정적이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첫 입사하여 모든 것이 서툴렀음에도 모든 분께서 따스하게 알려주시고 웃으며 인사해 주셔서 출근이 행복했습니다. 업무와 마음가짐 등 선배 연구원분께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본받아서 연구소의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가겠습니다.
영남융복합연구소 유해성평가팀 전승주 선임연구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동치서주 노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초에 세운 목표가 좋은 열매가 되어 수확의 기쁨을 주지만, 허울 좋은 목표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 탄소중립평가팀 여러분!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화학규제대응단 탄소중립평가팀 강영민 책임연구원

사랑합니다!
2023년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업무에도 서로 도와가며, 단합된 모습으로 인해 2023년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수출인증사업단 수출인증지원센터! 사랑합니다!
수출인증사업단 수출인증지원센터 최경진 책임연구원

KTR+FOCUS

하나의 주제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는 기획 섹션입니다.
감사와 정이 넘치는 KTR의 겨울을 꿈꿉니다.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다!

32 테마 인문학 반려견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34 미래적 참견시점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한 건강관리!

38 호기심 백과사전 초를 다루는 노력을 통해 삶을 풍성하게 한 성과들



Kim Ha jong

세상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다!

김하종에게 듣는 감사

1998년 7월 7일, '안나의 집'을 열어 노숙인, 실업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에서 온 나눔천사 김하종 신부는 25년 동안 이웃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겼다. 글로벌사업센터 김영인 수석연구원이 그를 만나, 안나의 집을 함께 세우고 지켜준 이들을 향한 감사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가진 나눔의 씨앗과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

감사를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모두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감사는 미래, 희망, 관계 등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사업센터 김영인 수석연구원이 김하종 신부를 찾은 것은 감사가 가진 소중함과 나눔을 실천해야 할 중요성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만남이 뜻깊은 것은 김영인 수석연구원은 2018년부터 안나의 집을 후원하며 감사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서다.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김하종 신부와 마주한 그는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한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굉장히 힘들었던 때,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모자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어요. 그때, 어느 분께서 내리시면서 제게 휴지 다섯 장을 건네주셨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분 얼굴을 보지는 못해 감사를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 휴지를 받고 '대단한 나눔, 배려는 큰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들,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나눔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분의 배려로 인해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작더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심적으로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받았던 따뜻한 지난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김영인 수석연구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김하종 신부는 그를 위로하며 감사와 나눔이 가진 힘에 대해 전해주었다.

"누구든지 나눔의 재능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가꿀 수 있습니다. 안나의 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눠야 합니다. 처음 안나의 집 설립에 도움을 준 식당을 운영하던 마테오 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작은 씨앗과 꽃들이 모여 안나의 집이라는 아름다운 나무를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안나의 집은?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이라는 뜻. 배고픈 이들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식당. 외로운 노숙인에게 가족, 고생하는 이에게는 안식처. 아픈 이에게는 긴급 야전병원. 가난한 이에게는 미래를 열어주는 집. 흑한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따스한 집. 누구나 봉사하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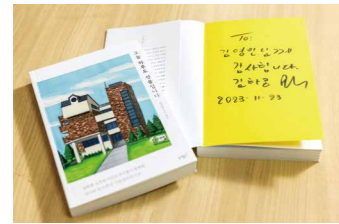
주소_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 안나의 집

About Kim Ha jong

오블라띠 선교 수도회 신부. 1957년 이탈리아 피안사 노에서 태어났으며 이탈리아 이름은 빈첸조 보르도 (Vincenzo Bordo). 2015년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다. 그리고 1987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선교 활동을 한 뒤, 같은 해 5월 12일 한국으로 왔다. 1992년 성남에서 빈민 사목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무료급식소인 '평화의 집'을 운영하다가 IMF 이후 급증한 노숙인들을 위해 '안나의 집'을 설립,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이라는 뜻의 '안나의 집'은 노숙인 급식소뿐만 아니라 노숙인 자활센터와 청소년 쉼터 등도 함께 운영한다.

Publication History

-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 《사랑이 밥 먹여준다》,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Award History

- 2014 — 호암상 사회봉사상
- 2015 — 이탈리아 공로훈장 세계인의 날 대통령상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 2018 — 아시아 필란트로피사 포니정 혁신상
- 2019 — 국민훈장 동백상
- 2021 — 만해대상 실천대상 인문기치대상 개인부분 대상
- 2023 — 적십자인도장 금장 수상

밝은 표정으로 안나의 집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받게 된 작고 큰 도움들에 감사를 전하는 김하중 신부의 한마디, 한마디에 김영인 연구원은 공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행복하게 해 준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감사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감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느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기적이 찾아온다

1987년 사제 서품을 받은 후 오블라띠 선교 수도회에 들어간 김하중 신부는 아시아 선교의 꿈을 갖고 1990년에 한국을 찾았다. 1992년 성남에서 사목을 시작하며 1993년 무료 급식소 '평화의 집'을 열었다. 이후 1998년 IMF 때 급증한 노숙인들을 위해 급식소 '안나의 집'을 설립했다. 음식 제공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인문학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그 후,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난다. 그는 '오늘 후원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매일 감사기도를 드리며 잠이 드는 감사한 삶을 체험하고 공유하며 감사와 나눔을 함께 전하고 있다. 그런 김하중 신부에게 어려움은 없었을까? 김영인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시절을 회상하며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19 때,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하면서도 부끄럽게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 봉사하러 오셨던 것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신부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김하중 신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안나의 집 운영 중단 요청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었다.

“시 공무원들이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라고요. 이유는 안나의 집을 찾는 분 중 70%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원봉사 당일, 코로나19가 두려워서 오지 못하겠다고 연락하신 분도 계셨어요. 저도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안나의 집을 열었던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봉사에 힘써주셨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아름다운 때였죠. 그래서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여정을 만들어 주신 봉사자와 후원자분들께 해도 해도 부족한 말이 “감사합니다”란 말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 나눔의 길 위에 피어난 꽃은 그래서 더욱 값지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책 속에서

김영인 수석연구원은 김하중 신부가 나눔을 실천하면서 인간적으로 느꼈을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했다.

“그분들은 제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추운 겨울날, 봉사를 위해 한 노숙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출처 없으시냐고 물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답하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년, 10년 그 후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삶이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힘이 생겨납니다. 어려운 분들, 노숙인 분들 모두 저의 스승이십니다.”

김하중 신부는 어려움과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선물이자 삶이었다. 그는 고백한다. 삶이 한 순간에 부서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러니 역경이 닥칠지라도 감사함으로 전진하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니.



KTR! 감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김하중 신부의 꿈은 안나의 집을 닫는 것이다. 그때가 굶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날까지 그는 안나의 집을 활짝 열어둘 것이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안나의 집’이 문을 닫는 것이다. 굶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무료 급식을 하는 ‘안나의 집’은 가까이 문을 닫아도 좋겠다. 하지만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안나의 집’ 문은 닫을 수 없다. 문을 열어두겠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 책 속에서

김하중 신부를 만나 따뜻한 용기를 얻고 간다는 김영인 수석연구원은 마음에 더 큰 감사와 나눔의 새 싹이 자라나, 사랑을 위해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중 신부님, 너무 밝고 포근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베푸라는 말씀 잘 간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만 나눔을 실천했는데 이제는 실천적인 봉사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감정 정화를 통한 마음의 평화, 사랑과 애정이 깃든 관계의 회복,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공감 등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 한 가운데 KTR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세상이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곳이 될 수 있게 하자.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고귀한 땅이 자리하고 있고, 노숙인들 마음 깊은 곳에도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밭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그 마음밭에 새 싹을 돋우고 싶다는 김하중 신부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다시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나아가자. 세상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 TIP 김하중 신부가 KTR 연구원들에게 전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 하나** 형제애를 갖고 올바른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 둘**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기.
 - 셋**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괜찮다 괜찮아’ 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김영인 수석연구원이 KTR 동료에게 전하는 감사메시지

“4월부터 다른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는 동료들과 선배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그분들한테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반려견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반려견의 행동으로 보는 감사 표현



반려견은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한다.

반려견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해한다면 반려견이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려견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공생해야 할지 알아보자.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반려견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떨어져 살 수 없는 사이가 된 이 둘의 관계는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가족으로 맺어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려견이 잠자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느껴 볼 수 없는 순수하고 오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인사 해주는 존재, 식사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 산책 동무가 되어주는 존재, 풍경 좋은 카페에서 커피 향을 더 짙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감사는 일방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매정한 사람일 지라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반려견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면, 반려견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에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건,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는 없지만,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는 존재이므로,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느끼고 감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온화한 눈빛은 당신을 향한 감사

아침에 눈을 뜰 때 반려견이 다가와 얼굴을 훑아 주었다면, 혼자가 아니게 해주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본디 개들은 혼자 살아가는 걸 무엇보다 힘들어하고 쓸쓸함을 많이 느끼

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에 지친 여러분이 소파나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을 때 가까이 다가와 함께 누워 준다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개들은 아주 많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밀착해 잠들지 않습니다. 엄마를 대신해 준 여러분과 따뜻함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조용한 오후 창가에 누워 편안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반려견을 바라보면서 반려견과의 삶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반려견은 사람만큼 감사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경직되지 않은 온화한 눈빛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낄 때 드러나는 표정입니다. 지치고 힘든 반려인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다가와 허리와 엉덩이로 지그시 밀어준다면 지친 반려인의 근심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교감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반려견은 감사한 사람에게 힘내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눈빛과 마음으로 반려견과 소통할 때 감사를 느낄 수 있어

반려견을 데리고 넓은 공원이나 개활지에서 자유롭게 걸을 때 수시로 다가와 인사하고 멀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자신의 본성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곁에 함께 있다는 것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반려견과 이름을 불렀을 때 얼른 다가와 주는 반려견의 차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에서 느끼는 감사함의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가족에게 다가와 천천히 얼굴을 훑아 준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에게 감사를 전하려는 겁니다. 장난스럽게 활는 장난꾸러기들은 많지만, 부드럽고 온화하게 훑아 주는 행동을 통해 감사해하는 반려견들은 드물어서 감사의 활음을 경험해 보려면 가끔은 말과 행동보다는 은은한 눈빛과 마음으로만 소통해 보아야 합니다. 가족이 현관을 들어설 때 가족의 자동차가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반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몸을 감사해하는 것입니다. 반려견들은 가족이 무슨 이유로 온종일 집을 비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흑어나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걱정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해주는 가족의 귀가아말로 반려견에게 최대치의 감사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를 공유하기 위해선 반려견을 배려해야

이렇듯, 반려견들은 반려 가족 하나하나에 매일의 감사함을 전하고 있으며, 그 순수함을 통해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더불어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반려견과 나누는 감사함을 더 은은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려견들을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아기처럼 대하는 것을 즐기고 가족의 곁에서 조용히 쉬거나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온종일 조금하게 움직이게 만들거나 휴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감사함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므로, 조금 더 온화하고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말투로 의사를 전달하며 조금 더 반려견의 마음을 읽는 데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려인이 자기를 많이 사랑하고 깊이 감사해하고 있음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TIP

겨울철 반려견 양육법

- ① 반려견들은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감기에 잘 걸리므로, 따뜻한 옷을 입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좋은 감기 예방법은 산책하러 나가기 전 2-3분 정도 실내에서 장난감 물어오거나 가족을 따라 걷게 해주어 체온을 조금이나마 높여주고 경직된 신체를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②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걷는 자체만으로도 뒷무릎 관절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슬개골 탈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달리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면, 넘어진 위치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 길로 다니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 ③ 추운 날씨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창문을 열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견들은 자동차를 타면 불안정해져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려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단 몇 분만 얼굴을 내밀어도 찬바람에 의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한 건강관리!



Healthcare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줄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환자를 치료하는 약으로서 등장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치료제다. 이제 디지털 기술이 헬스케어와 만나 여러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보자.



디지털 기술, 헬스케어를 만나다!



디지털 기술이 뭘까? 이것은 디지털 기술이 만든 스마트폰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십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이 전화기는 전화 통화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곧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과 쇼핑, 게임과 유튜브 영상시청 등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원리와 디지털 기술을 몰라도 자유자재로 편하게 사용하고 즐긴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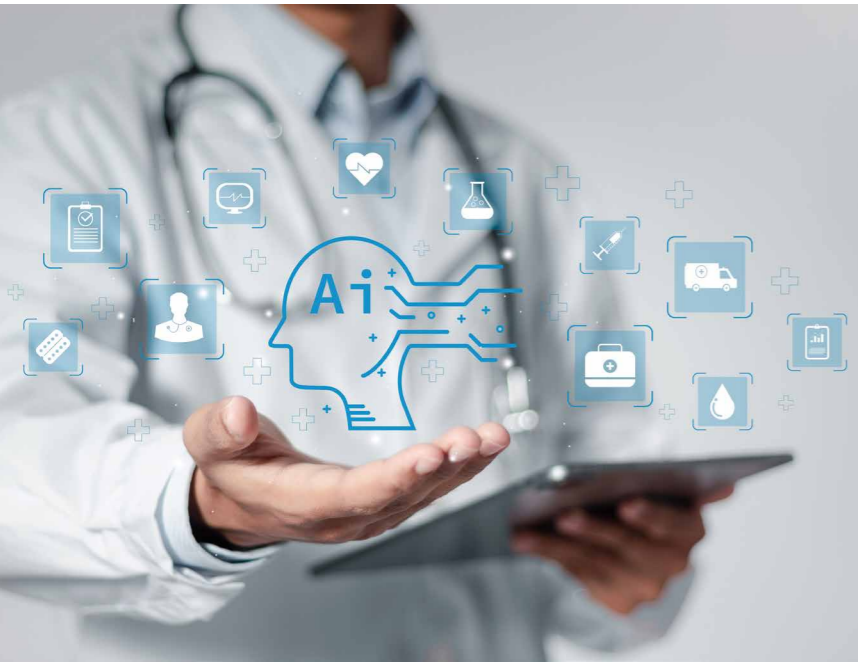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이 우리 건강에 관련된 헬스케어와 만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탄생했다. 예전에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만보계와 식단관리 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되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App)과 전자기기로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밴드다. 이것은 심박수, 걸음 수, 칼로리, 수면상태 등을 측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돕는다. 또한 병에 걸린 환자가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두뇌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그럼 뭔가 좀 더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벌써 인공지능이 스마트한 건강관리에 나섰다. 사람의 두뇌처럼 인공지능은 '인지-학습-추론-판단'을 스스로 하는 소프트웨어다. 이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의 두뇌 역할을 시작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잘하는 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이 병원의 환자의 의무기록과 진료기록 및 유전체 데이터 등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잘한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촬영한 환자의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의료영상 판독을 잘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장기간 모니터링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일도 잘한다. 이외에도 대장암, 폐질환, 심장질환, 결핵, 뇌졸중 등 여러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와 메타버스,
미래 의료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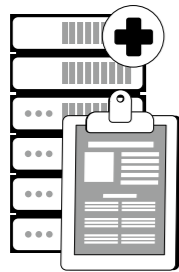
몇 주 전에 한국-인도 e스포츠 경기대회가 열리는 큰 행사장에 가서 양국 선수들의 열띤 경기를 관람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 정부와 인도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행사로서 수많은 관람객이 모여 함성을 지르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처럼 요즘 게임은 혼자서 즐기던 수준을 넘어 국제행사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 게임이 이제 병에 걸린 환자도 치료하겠다고 나섰다. 만약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주사나 먹는 약은 주지 않고 어떤 게임을 열심히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일은 마치 먼 미래에나 가능할 같지만 벌써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게임이 3세대 약으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다.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다. 환자가 게임을 열심히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서 병이 치료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환자의 질병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이다.

2017년 9월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미국 페어 테라퓨틱스 기업이 만든 '리세트(reSET)'라는 스마트폰 앱을 디지털 치료제로 허가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디지털 치료제다. 이후 2020년 6월에 미국 아킬리 인터랙티브 기업이 개발한 '인데버(EndeavorRx)' 게임이 FDA의 허가를 받았다. 이 게임은 8~12세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이용한 헬스케어도 생겨났다.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우리의 건강을 돌봐준다는 것이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환자 수술도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과 중앙대광명병원은 메타버스에 병원을 세워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미리 가상세계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나의 아바타가 메타버스에 세워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고 치료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가는 스마트한 건강관리 시대를 살고 있다.

**빅데이터,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빅데이터의 몸값이 부쩍 높아졌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는 제약업계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연간 80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외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인공지능 회사들과 손을 잡고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잠깐 개념을 짚고 가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는 요리사와 음식재료와의 관계와 같다. 호텔의 일류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려면 다양한 채소와 육류 및 해산물이 필요하다. 요리사가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요리하듯이, 인공지능은 다양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활용하여 결과를 내놓는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대접받는 것이 빅데이터다.

우리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데이터는 개인건강정보(HPR), 전자의무기록(EMR), 유전체 정보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건강정보란 우리가 집이나 건강관리 센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혈압, 혈당 수치, 운동량, 심전도 등의 정보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나 질병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인적사항, 병력, 처방결과 등의 정보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정보란 각 개인의 몸속 세포에 있는 DNA에 존재하는 건강과 관련된 유전정보다. 이 세 가지 헬스케어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 덕분에 양질의 빅데이터를 갖게 되었다. 최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질병 종류별로 분석한 후 그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건의료 원격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빅데이터 개방 포털을 연구자와 의료진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욱 의미 있는 일은 정부가 주도하여 고품질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의료 빅데이터를 가진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과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료기기와 신약을 제조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초를 다투는 노력을 통해 삶을 풍성하게 한 성과들

NEW WAR 9.99 SEC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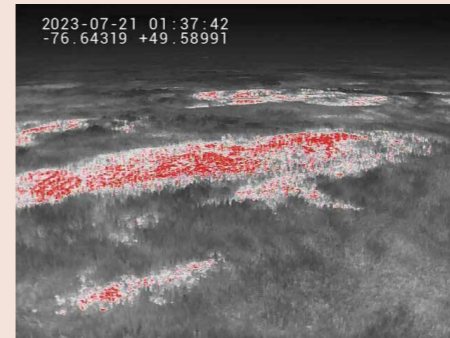
1912년 제5회 하계올림픽에서 돈 리핀콧은 100m 달리기 10초 6의 기록을 세웠다.
2009년 제12회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는 9초 58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0.8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1세기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0.8초, 1초, 2초를 줄이거나 앞당기는 도전을 통해
비상하는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희열과 고마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연구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민간 구조대 화이트헬멧의 리더인 라에드 알살레는 “생명을 구하는 데 1분 1초가 절실하다”며 도움을 촉구했다. 재난 발생 시에 구조대와 의사, 소방관들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것이다. 지진 발생 시에 구조가 60초가 늦어지면 건물 붕괴나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화재 발생 시에 구조가 60초가 늦어지면 화재가 더 확산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대는 지진 발생 즉시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1분 1초가 절실한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월, 동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자 원전 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증설해 최초 탐지 시간을 더 단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90개인 지진관측소를 2027년까지 851개로 두 배 이상 늘려 관측 시간을 3.4초에서 1.4초로 줄여줄 계획이다. 이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국의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간 효율을 높인 내비게이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발명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최적 안내 시스템이다.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여 길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줄여줘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 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한다. 한편, 최초의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은 1981년 일본의 혼다가 개발한 일렉트로 자이로케이터이다.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산불확진 파악 화면(출처: 산림청)



일렉트로 자이로케이터

생명보호를 위한 시간 단축 기술들

AI 인공지능(AI)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 시 구조 대원의 출동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빠르게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재난 구조
드론과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 대원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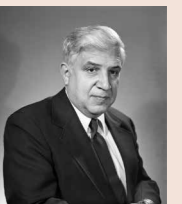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기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의료 기기를 신속하게 제작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TR PICK

200m 달리기 최대 3.4초 단축해 주는 '로봇 슈트'
지난 9월, 이기욱 중앙대 교수 연구팀은 일반인 대상 200m 전력 질주 기록을 평균 1초 단축하는 입을 '로봇 슈트'를 개발했다. 이 교수는 “인간이 로봇과 함께 신체 능력의 한계를 돌파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로봇 슈트(출처: 이기욱 중앙대 교수 연구팀)



KTR QUIZ

- Q. 내비게이션의 핵심인 GPS를 개발한 연구원은 누구?
A. 로저 이스턴 - 미국 해군 연구소의 우주 응용 분야 책임자로서 GPS의 기본 원리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전자 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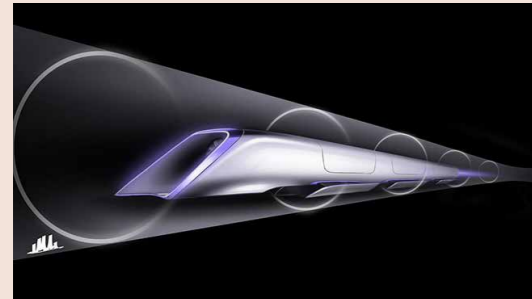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또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주었다. 세계 최초의 전자 상거래는 1979년 영국의 발명가 마이클 알드리치가 개발한 'CompuServe' 시스템이다. 전화선을 사용하여 소비자와 기업을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CompuServe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기업은 CompuServe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전자 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했고, 1980년대부터 전자 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클 알드리치

시간과 미래를 바꿀 하이퍼루프 기술

하이퍼루프 기술은 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서 열차가 초음속으로 운행하는 기술이다. 하이퍼루프 열차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마찰이 적기 때문에 KTX보다 훨씬 빠르게 운행할 수 있다. 시속 1,200km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물류 운송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화물 운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하이퍼루프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많은 기업과 국가에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퍼루프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고안했다.



하이퍼루프 여객 운송 캡슐 개념 디자인 렌더링 <출처: 테슬라 모터스 블로그>

TIP



연구 시간을 단축하는 법

1. 연구 목표와 가설을 명확히 설정하기
2. 연구 방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기
3. 필요 없는 작업을 최소화하기
4. 연구 결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방법 모색하기
5.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
6.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기

함께 생각하기

10sec

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마운 시간

Q. 10초의 시간에 동료에게 전할 수 있는 감사 인사는?

1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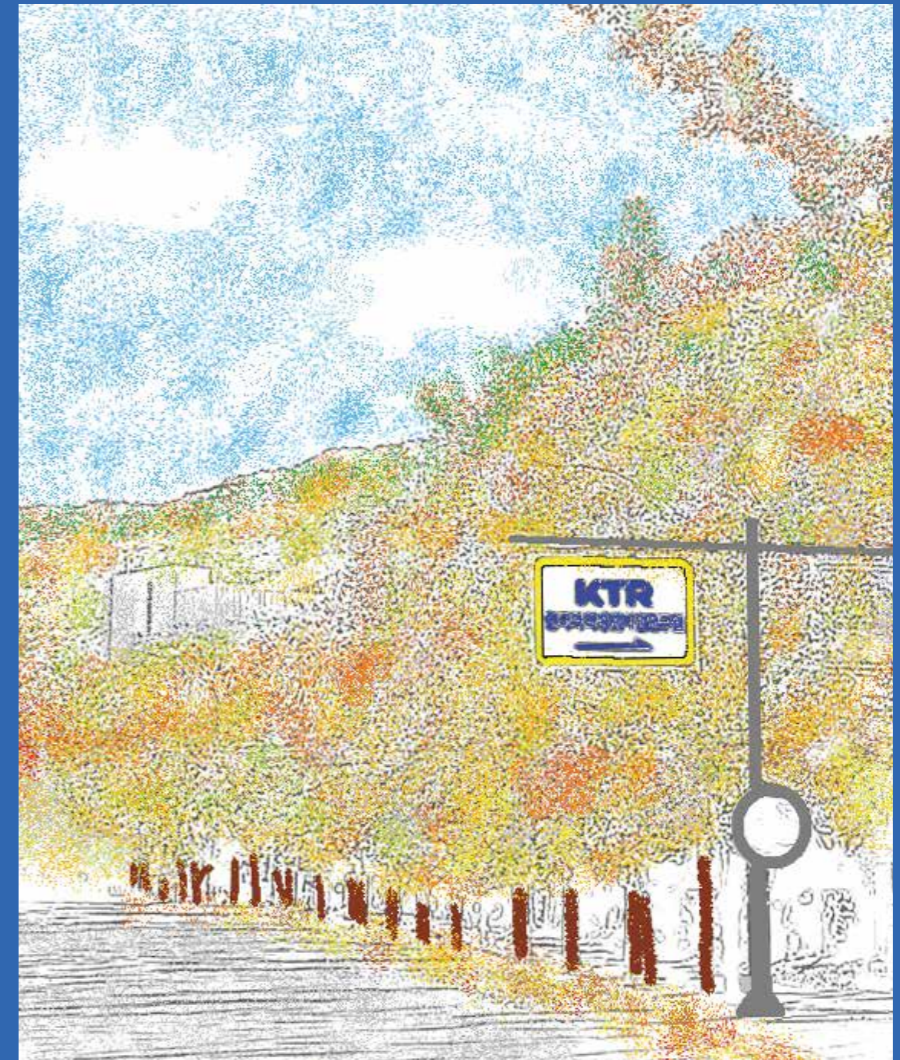
“오늘 제가 힘들 때 책임연구원님이 도와줘서 고맙웠어요. 그 덕분에 오늘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석연구원님이 항상 앞에서 웃어줘서 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이 알려준 정보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Q. 10초의 시간을 통해 감사를 주고 받는 방법은?

- ① 노약자,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다.
- ② 동료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도움을 준다.
- ③ SNS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말이나 칭찬을 올린다.
- ④ 업무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준다.
- ⑤ 길이나 회사에서 쓰레기를 발견하면 줍는다.

KTR+CULTURE

회사 안팎의 다양한 문화교양 정보를 전하는 섹션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의 지혜를 선물합니다.



나만의 컬러링 가을호 수상작 | 경기남부센터 오호연 연구원

42

마음 처방전
삶에 감사해

46

이상한 과학실
왜 눈은
하얀색일까?

48

일상 속의 여유
감사와 기쁨 한가득
겨울 여정!

삶에 감사해



생계를 위해 무미건조한 날들을 견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상처가 되어 불현듯 끝나기도 하지요. 생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고 현재의 내 삶에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이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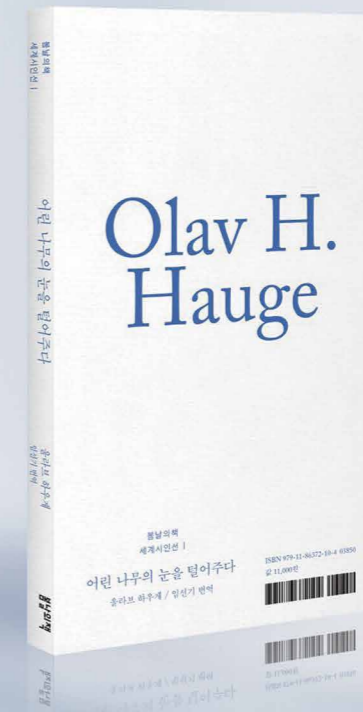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하나

시인 올라브 하우게의 시집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

매일 정원에서 노동하며 숲에서 좋은 시를 썼던 올라브 하우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노르웨이 울빅에서 평생 정원사로 일했어요. 그의 시는 아주 쉽습니다. 바로 눈앞의 야생 장미, 크랜베리들, 익어가는 개암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린 나무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쓴 시도 아름답습니다. 손에 긴 낫을 든 채 쓴 시도 있고 사과 나무 가지 끝을 당겨주며 쓴 시도 있고 비 오는 날 늪은 참나무 아래 멈춰서서 쓴 시도 있어요. 별을 보며 쓴 시나 고양이와 얘기하는 시는 유독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작품 30편은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봄날의책, 2017)에 실려 있어요. 이 시집을 번역한 임선기 선생님도 시인이기 때문에 낯선 언어의 결을 잘 살려내셨습니다. 번역된 시 1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대양이 아니라 물을 원해요
천국이 아니라 빛을 원해요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새가 호수에서 물방울을 가져오듯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
_ 올라브 하우게,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진리나 대양, 천국처럼 거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죠. 식수와 햇볕, 소금 한 톨처럼 일상적인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동료가 건네주는 작은 안부의 말을 듣고 따스한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혼자자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매일 뜨는 태양의 빛에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올라브 하우게는 일평생 일하며 짬짬이 책을 읽고 글을 썼는데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평생 일하던 농장 아래 성당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작은 망아지가 뛰어들고 꽃과 나무가 행복하게 흔들렸다고 해요. 당연하게 일하고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평화로이 죽음을 맞이한 시인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둘

소설가 백수린의 에세이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행복하다는 느낌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생의 의지와 살아 있음의 아름다움,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을 선사해 줄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현대문학상, 젊은작가상 등을 수상하며 발표하는 작품마다 평단과 독자의 찬사를 받아온 소설가 백수린의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창비, 2022.10.)입니다.

백수린 작가는 아파트를 벗어나 난생처음 높은 언덕 위 넓고 작은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긴 시간에 걸쳐 집과 동네에 찬찬히 스며들어 가는 여정을 촘촘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옛 성곽이 보이는 풍경, 높은 언덕과 폭이 좁은 골목, 다정한 M이모, 살뜰한 E언니, 인생의 첫 강아지 봉봉, 무심히 챙겨주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같은 따스한 존재 덕분에 행복의 순간으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방 안까지 흘러들어오는 각종 외부 소음이 있고 다소 무례한 이웃들도 있지만, 작가는 이해와 감사의 시선을 담아 자신에게 사랑을 일깨워 준 모든 존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골목길을 걷다가 색색의 팬지를 정성껏 키워놓은 어느 집 앞 화분에 주인이 붙여놓은

‘꽃 꺾어 간 도둑놈아, 달라면 주었을 텐데’라는 문장을 보며 잠시 웃고, 정자 앞에 앉아 바둑을 두며 심각한 듯 미간을 모으는 할아버지들을 훑쳐보기도 합니다. “아가씨,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뒷집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해요. 어떤 날엔 사주풀이를 해주는 사람과 만나는데 후일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운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이는 아주 난감한 얼굴로 나는 새처럼, 바람처럼 정착하지 못하는 사주를 타고났으며, 결혼을 아주 늦게 하거나 남자 대신 가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주라고 말했다. 사주풀이를 해준 이는 미안해했지만 나는 나의 사주가 딱 마음에 들었다. 새처럼, 바람처럼 자유롭다니! 이보다 더 멋진 운명이 있을까? 나는 ‘결혼을 아주 늦게 하거나 남자 대신 가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주’라는 그의 말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이라고 해석했는데, 그건 내가 꿈꾸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아주 근사한 인생이었다.”

백수린 작가의 이채롭고 긍정적인 사유,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에세이를 읽다 보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그 인생의 찬란한 비밀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MIND PRESCRIPTION

마음 처방, 셋

소설가 김화진의 소설

《나주에 대하여》

내 것이지만 좀처럼 내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마음은 딱딱해지고 불평이 늘어나니 말이지. 등단 이후 일관된 열의로 ‘타인의 마음’이라는 미지에의 탐색을 지속해 온 작가의 첫 소설집이 있습니다. 김화진의 《나주에 대하여》(문학동네, 2022.10.)의 여덟 편의 이야기에는 타인을 궁금해하는 마음,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타인이 되어보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단편 「새 이야기」는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남자가 ‘새’로 묘사되는데 둘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다가 차차 사랑을 싹틔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편 「나주에 대하여」는 제목만 볼 땐 ‘나주’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직장 후배 ‘에나주’에게 집착하는 ‘나’의 심리상태가 세밀하게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회사 차에 나란히 앉아 영업을 돌며 나누는 대화의 손에 땀을 쥐게 해요.

「꿈과 요리」는 우정의 양면성으로 갈등하는 두 친구 이야기이고, 「근육의 모양」은 필라테스를 배우는 수강생과 강사 사이의 관계를 축으로 어떤 리스크는 흥터가 아니라 근육임을 가르쳐줍니다. 나머지 4편의 단편소설도 누군가에 대한 열망, 애뜻함, 방향, 질투와 불안, 연민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흔한 이야기를 흔하지 않게 담아 타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위로하고, 공감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북 큐레이터가 감사를 기다리는 KTR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는 작은 일에 웃고 웃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고, 타인과 자신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며 고군분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열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EDITOR TIP 감사한 삶에 대한 영화

1. **오두막**
감사 ★★★★★

감독 스투어트 하젤딘
출연 샘 워싱턴, 옥타비아 스펜서



막내딸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가는 남자 맥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맥은 혼자 오두막으로 향한다. 맥은 신비로운 세 사람과 만나면서 회복과 감사를 경험한다.

2. **집으로**
사랑 ★★★★★

감독 이정향
출연 김윤분, 유승호



7살 개구쟁이 상우가 외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시골집에 머물게 된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와의 시골살이. 그 과정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알게 된다.

3. **겨울왕국**
기쁨 ★★★★★

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
출연 크리스틴 벨, 이디나 멘젤



언니 엘사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바로 그것.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고,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환상적인 여정을 떠난다.

왜 눈은 하얀색일까?

하얀 눈은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
 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눈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자.



플라멩코 아이스타워

눈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

눈이 하얀색인 이유는 눈의 결정 구조 때문이다. 눈은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결정은 육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다. 육각형 모양의 각진 면은 빛을 반사하거나 굴절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빛이 눈의 표면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합성되어 하얀색으로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투명한 유리를 가루로 내면 하얗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가루로 내면 육각형 모양의 각진 면이 생기면서 빛을 반사하거나 굴절시켜 하얗게 보이게 된다. 눈의 결정 구조는 온도, 습도, 수증기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눈의 색깔은 이러한 요인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기가 매우 깨끗한 곳에서는 눈이 더 하얗게 보일 수 있다. 반면에 공기가 오염된 곳에서는 눈이 약간 노란색이나 녹색을 띠기도 하다. 눈의 하얀색은 겨울의 대표적인 색깔 중 하나로 눈이 내리면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얀 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

하나, 순수함과 희망

눈은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한다. 눈은 모든 색깔을 반사하거나 굴절시켜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둘, 다양한 관점

눈은 단순히 하얀색으로만 보이지 않고, 다양한 색깔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세상이 단순히 흑백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셋, 변화와 도전

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아 없어진다. 이는 변화를 상징한다. 세상은 끊임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 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얼빈 국제 빙설제



삿포로 눈 축제



퀘벡 윈터카니발

KTR 상식 세계 3대 얼음 축제

- 1. 하얼빈 국제 빙설제** —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겨울 축제.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얼음성이다. 얼음성은 수천 톤의 얼음으로 만들어지며, 그 높이는 30미터 이상에 달한다.
- 2. 삿포로 눈 축제** — 매년 2월 초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 1950년 2월 18일부터 개최되었다. 15m 상당의 얼음조각과 눈으로 만든 예술조각이 전시되며, 밤에는 조명이 켜진다.
- 3. 퀘벡 윈터카니발** — 캐나다 퀘벡주 퀘벡에서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개최되는 겨울 축제. 해마다 주제를 정해 퀘벡 중심으로 얼음 조각 축제가 열린다.

Q.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이스타워는?

A. 2018년 하얼빈 국제 빙설제에서 31미터 높이의 아이스타워가 공개되었다. 2년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 대학생이 함께 만들었다. 타워의 디자인은 중국 전통 탑의 모양과 플라멩코 드레스를 기반으로 한다. 바로 플라멩코 아이스타워이다.

감사와 기쁨 한가득 겨울 여정!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

1년 동안 수고한 우리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2024년을 맞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각오를 다잡는 데 도움을 주는 여정을 소개한다.



PLACE 01

돌고래 테마파크! 거제시 거제씨월드

거제씨월드는 대한민국 최대의 돌고래 체험시설로 체험·교육·휴양·치유 등을 통한 인간과 돌고래 간의 상호작용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돌고래 만지기·돌고래와 악수하기·돌고래에게 먹이 주기 및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기 등의 형태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큰돌고래, 벨루가, 50여 종의 희귀 파충류를 만날 수 있다. 비가 와도 관람이나 체험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돌핀 프레젠테이션(생태설명회)과 체험 프로그램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우산이나 우의를 준비해야 한다.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촬영지로 유명하다.

GUIDE

거제씨월드
주소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5
문의 0507-1400-1551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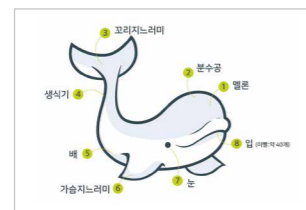
돌핀 프레젠테이션, 벨루가 포토타임, 벨루가 수중공연, 파충류 학습관, 돌고래 수족관

주요 체험행사

교감체험, 아쿠아체험, 돌핀 스윙체험, 라이드체험

INTRODUCTION

거제씨월드 마스코트, 벨루가



PLACE 02

가장 큰 애기동백나무숲! 제주시 제주동백수목원

동백은 한국의 대표적인 꽃으로, 붉은색 꽃잎이 어우러져 강렬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붉은 꽃잎을 피워내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동백의 꽃말은 '절개'이다. 곧고 올곧은 기개를 상징한다. 이 동백을 가장 아름답게 꾸민 곳이 제주동백수목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애기동백나무 숲(수령 45년 이상)을 볼 수 있는 힐링 명소이다. 예쁜 사진 찍기 핫플레이스이며,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로 인기이다. 매주 금요일은 휴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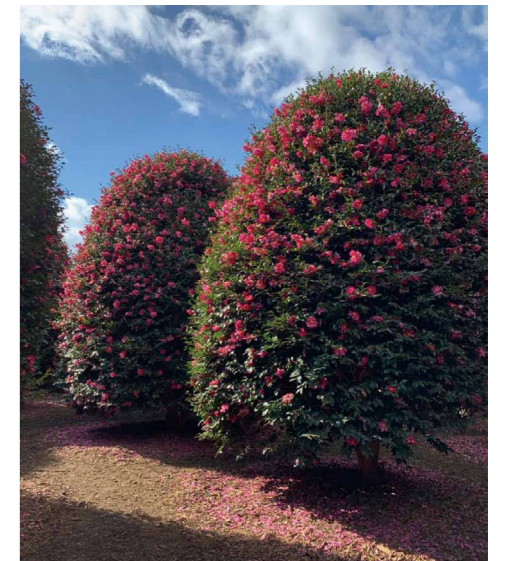
GUIDE

제주동백수목원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929-2
문의 064-764-4473



주변 맛집

국수 맛집 '위미동백식당': 남원읍 태위로 278
퓨전파스타 맛집 '취향의심': 남원읍 태위로 398번길 7
베이커리 맛집 '모노클제주': 남원읍 태위로 360번길 30-8



PLACE 03

자연과 문화의 어울림! 원주시 뮤지엄산

뮤지엄산은 노출 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공사를 시작하여 빛과 공간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2013년 5월 개관하였다. 뮤지엄산은 오솔길을 따라 웰컴 센터, 잔디주차장을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분관, 명상관, 스톤가든 그리고 제임스터렐관으로 이어져 있다. 사계절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품에서 건축과 예술이 하모니를 이루는 문화공간인 뮤지엄산은 소통을 위한 단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이와 아날로그를 통해 그동안 잊고 지낸 삶의 여유와 자연과 예술 속에서의 휴식을 선물하고 있다. 종이의 탄생을 볼 수 있는 페이퍼 갤러리, 나를 찾는 명상관 등이 있다.

GUIDE

뮤지엄산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뮤지엄산
문의 0507-1430-9001



부대시설

아트샵&카페, 카페테라스, 평화공방, 수유실



QUIZ

우체통

KTR&U 연상퀴즈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나요? 웃음과 재미를 주는 연상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정답을 이름, 연락처와 함께 sunnypark@ktr.or.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요기요 3만 원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1월 1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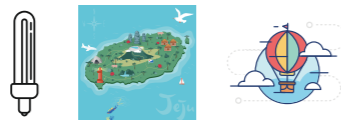
Q1. 김현철 원장님께서 체육대회 개최 축하 인사를 통해 KTR 직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체육대회도 직원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더욱 OO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Q2. KTR의 조경, 전기, 설비, 기계, 미화,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일꾼은 어떤 팀일까요? '경영기획본부 OOOO팀'



Q3. 김하중 신부가 KTR 직원에게 전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은 무엇일까요? 'OOO를 갖고 올바른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Q4. 국내 유일하게 타임지 2023년 100대 사진으로 선정된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는 어떤 동물일까요?



colouring

나만의 컬러링

감사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색칠해 보세요!



크리스마스트리를 여러분만의 감성으로 감사와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색칠해 사진을 찍어 성명, 연락처와 함께 sunnypark@ktr.or.kr로 보내주세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분께는 교촌치킨 허니콤버와 레드콤보웨이거세트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 1월 12일까지